

광주 서구를 보선 '非새정치연대' 성사되나

천정배·정의당·국민모임 성사뎐 파급력

새정치 "탈당 분열은 광주정신 아니다" 축가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후 출마하기로 하면서 4·29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비(非)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천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광주 서구를 중심으로 정의당·국민모임 등이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모임은 정의당과 '보선 공동대응' 원칙을 세우기는 했지만 5일 현재까지는 독자 후보를 몰색하고 있다. 우선 광주 서구에는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이상갑 변호사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된다.

또 서을 관악구에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송주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중원에도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이름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광주 서구에 강은미 후보, 관악구에 이동영 후보를 냈으며 성남 중원에 출마할 후보도 몰색 중이다.

그러나 천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이들의 선거전략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의당과 국민모임은 천 전 의원의 연대를 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모임의 소속의 정동영 전 의원은 지난 4일 "천 전 장관과 선거연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호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의 일당 독주체제를 깨자는 게 국민모임의 생각이고 천 전 장관의 뜻"이라며 "(천 전 장관과) 나름 교감도 해왔다"고 말했다.

천 전 의원 역시 "국민모임과 꼭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며 "개혁과 쇄신을 주도할 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 서을 선거연대가 성사되면 파급력이 적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무소속 시민후보'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흐름에 축가를 곤두

세우면서도 탈당의 파괴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당내 동요를 차단했다.

보선기획단장인 양승조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탈당으로 분열된 모습은 절대 광주정신이 아니다"라며 "명분 없는 탈당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과 다른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대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야권연대는 절대 안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당원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원칙없는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이 이날 MBC라디오에서 "새 지도부 출범 후 당이 개혁적결을 내세워 단합하는 시기"라며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했으니 출마하고 싶었다면 경선에 참여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조항

국회 정무위, 재추진 논란 예고

여야 간사 "4월국회 입법"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원안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다시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무위는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 부분을 빼고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법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 원안 형식에 맞게 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금품수수·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벌써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이해충돌 방지' 부분까지 포함되면 결집을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 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될 것만으로도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안과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 모두 공직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제척, 즉 배제대상이 된다.

게다가 정부안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김 의원 안에서는 이들과도 모두 포함됐다.

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원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원안대로 민법상 사촌까지도 대상이 확정되면 실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20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권익위는 일단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마찰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 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 과잉입법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법 대로라면 금감원에 근무하다 2년전 퇴직한 사람의 동생이 집을 사려는데, 알고보니 집 주인이 금융권 종사자라면 이 매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버는 사람" 아닌 "있는 사람" 증세해야

새정치 민주정책연구원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 연구원은 5일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극심한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은 '세금의 정치 - 세계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이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근로소득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 강화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돈의 흐름을 왕성하게 해 돈 버는 것을 북돋는 것"이라며 증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에서 공식 발표한 인신대신 대신 보육세 인상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적을 만드는 프레임은 넘어 우군을 만드는 목적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희정·문재인 커피 대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한 갤러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주홍 "전남도당 당비 내역 매월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모든 당비 지출내역을 당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은 5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을 위해 당비 사용내역부터 투명하게 깨끗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도당의 재정을 매월 당보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당의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가 당비 및 국고보조금 등을 폐쇄적으로



사용해온 것에 비해 이례적인 일로 황 위원장의 경선 공약이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영남권 등 취약 지역과 달리 중앙당에 맞게 당당하게 배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수는 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당원들이 내는 직책당비와 약정 당비, 특별 당비는 월 평균 4000만~6000만원 규모다. 황 위원장은 "전남은 중앙당으로부터 당의 뿌리이자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었지만 그 호칭에 걸맞은 예우와 배려가 없었다"며 "투명한 재정운영을 토대로 중앙당이 받는 정당보조금도 전남의 위상에 맞게 당당하게 배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1.유동자산 | 22,224,941,486 | 1.유동부채 | 25,811,118,974 |
| (1) 현금 | 20,749,769,598 | 1.매입채무 | 2,677,468,433 |
| 2.단기금융상품 | 4,940,151,248 | 2.미지급금 | 442,395,579 |
| 3.매출채권 | 1,604,800,000 | 3.단기차입금 | 15,900,000,000 |
| 4.미수금 | 4,509,906,531 | 4.신수 | 12,452,586 |
| 5.미수입금 | 145,089,063 | 5.미지급비용 | 67,471,369 |
| 6.단기대리점 | 1,393,084,967 | 6.미지급법인세 | 2,079,675,619 |
| 7.미수수익 | 6,300,000,000 | 7.미지급배당금 | 493,389,564 |
| 8.미수수익 | 100,477,300 | 8.미지급배당금 | 18,421,250 |
| 9.미수수익 | 780,034,011 | 9.신수 | 97,176,074 |
| 10.유동성장기차입금 | 531,103,333 | 10.유동성장기차입금 | 2,499,990,000 |
| 11.유동성장기차입금 | 58,885,089 | 11.유동성장기차입금 | 1,612,657,869 |
| 12.유동성장기차입금 | 34,889,994 | 12.유동성장기차입금 | 657,339,269 |
| 13.유동성장기차입금 | 141,536,190 | 13.유동성장기차입금 | 480,550,000 |
| 14.유동성장기차입금 | 1,475,171,898 | 14.유동성장기차입금 | 11,199,288,232 |
| 15.유동성장기차입금 | 1,475,171,898 | 15.유동성장기차입금 | 13,600,803,797 |
| 16.유동성장기차입금 | 68,229,784,041 | 16.유동성장기차입금 | 2,616,712,009 |
| 17.유동성장기차입금 | 15,879,062,821 | 17.유동성장기차입금 | 1,496,355,761 |
| 18.유동성장기차입금 | 15,000,000 | 18.유동성장기차입금 | 1,281,149,317 |
| 19.유동성장기차입금 | 3,280,285,687 | 19.유동성장기차입금 | |
| 20.유동성장기차입금 | 12,581,777,154 | 20.유동성장기차입금 | |
| 21.유동성장기차입금 | 49,458,469,417 | 21.유동성장기차입금 | |
| 22.유동성장기차입금 | 1,395,085,205 | 22.유동성장기차입금 | |
| 23.유동성장기차입금 | 3,095,514,475 | 23.유동성장기차입금 | |
| 24.유동성장기차입금 | 1,405,744,793 | 24.유동성장기차입금 | |
| 25.유동성장기차입금 | 95,624,326,344 | 25.유동성장기차입금 | |
| 26.유동성장기차입금 | 698,133,621,292 | 26.유동성장기차입금 | |
| 27.유동성장기차입금 | 21,923,942,122 | 27.유동성장기차입금 | |
| 28.유동성장기차입금 | 21,923,942,122 | 28.유동성장기차입금 | |
| 29.유동성장기차입금 | 193,534,289 | 29.유동성장기차입금 | |
| 30.유동성장기차입금 | 1,446,270,947 | 30.유동성장기차입금 | |
| 31.유동성장기차입금 | 592,614,714 | 31.유동성장기차입금 | |
| 32.유동성장기차입금 | 333,201,806 | 32.유동성장기차입금 | |
| 33.유동성장기차입금 | 4,848,369,925 | 33.유동성장기차입금 | |
| 34.유동성장기차입금 | 4,848,369,925 | 34.유동성장기차입금 | |
| 35.유동성장기차입금 | 5,272,912,798 | 35.유동성장기차입금 | |
| 36.유동성장기차입금 | 12,968,500,863 | 36.유동성장기차입금 | |
| 37.유동성장기차입금 | 536,187,530 | 37.유동성장기차입금 | |
| 38.유동성장기차입금 | 2,892,252,803 | 38.유동성장기차입금 | |
| 39.유동성장기차입금 | 2,189,019,208 | 39.유동성장기차입금 | |
| 40.유동성장기차입금 | 723,234,595 | 40.유동성장기차입금 | |
| 41.유동성장기차입금 | | 41.유동성장기차입금 | |
| 42.유동성장기차입금 | | 42.유동성장기차입금 | |
| 43.유동성장기차입금 | | 43.유동성장기차입금 | |
| 44.유동성장기차입금 | | 44.유동성장기차입금 | |
| 45.유동성장기차입금 | | 45.유동성장기차입금 | |
| 46.유동성장기차입금 | | 46.유동성장기차입금 | |
| 47.유동성장기차입금 | | 47.유동성장기차입금 | |
| 48.유동성장기차입금 | | 48.유동성장기차입금 | |
| 49.유동성장기차입금 | | 49.유동성장기차입금 | |
| 50.유동성장기차입금 | | 50.유동성장기차입금 | |
| 51.유동성장기차입금 | | 51.유동성장기차입금 | |
| 52.유동성장기차입금 | | 52.유동성장기차입금 | |
| 53.유동성장기차입금 | | 53.유동성장기차입금 | |
| 54.유동성장기차입금 | | 54.유동성장기차입금 | |
| 55.유동성장기차입금 | | 55.유동성장기차입금 | |
| 56.유동성장기차입금 | | 56.유동성장기차입금 | |
| 57.유동성장기차입금 | | 57.유동성장기차입금 | |
| 58.유동성장기차입금 | | 58.유동성장기차입금 | |
| 59.유동성장기차입금 | | 59.유동성장기차입금 | |
| 60.유동성장기차입금 | | 60.유동성장기차입금 | |
| 61.유동성장기차입금 | | 61.유동성장기차입금 | |
| 62.유동성장기차입금 | | 62.유동성장기차입금 | |
| 63.유동성장기차입금 | | 63.유동성장기차입금 | |
| 64.유동성장기차입금 | | 64.유동성장기차입금 | |
| 65.유동성장기차입금 | | 65.유동성장기차입금 | |
| 66.유동성장기차입금 | | 66.유동성장기차입금 | |
| 67.유동성장기차입금 | | 67.유동성장기차입금 | |
| 68.유동성장기차입금 | | 68.유동성장기차입금 | |
| 69.유동성장기차입금 | | 69.유동성장기차입금 | |
| 70.유동성장기차입금 | | 70.유동성장기차입금 | |
| 71.유동성장기차입금 | | 71.유동성장기차입금 | |
| 72.유동성장기차입금 | | 72.유동성장기차입금 | |
| 73.유동성장기차입금 | | 73.유동성장기차입금 | |
| 74.유동성장기차입금 | | 74.유동성장기차입금 | |
| 75.유동성장기차입금 | | 75.유동성장기차입금 | |
| 76.유동성장기차입금 | | 76.유동성장기차입금 | |
| 77.유동성장기차입금 | | 77.유동성장기차입금 | |
| 78.유동성장기차입금 | | 78.유동성장기차입금 | |
| 79.유동성장기차입금 | | 79.유동성장기차입금 | |
| 80.유동성장기차입금 | | 80.유동성장기차입금 | |
| 81.유동성장기차입금 | | 81.유동성장기차입금 | |
| 82.유동성장기차입금 | | 82.유동성장기차입금 | |
| 83.유동성장기차입금 | | 83.유동성장기차입금 | |
| 84.유동성장기차입금 | | 84.유동성장기차입금 | |
| 85.유동성장기차입금 | | 85.유동성장기차입금 | |
| 86.유동성장기차입금 | | 86.유동성장기차입금 | |
| 87.유동성장기차입금 | | 87.유동성장기차입금 | |
| 88.유동성장기차입금 | | 88.유동성장기차입금 | |
| 89.유동성장기차입금 | | 89.유동성장기차입금 | |
| 90.유동성장기차입금 | | 90.유동성장기차입금 | |
| 91.유동성장기차입금 | | 91.유동성장기차입금 | |
| 92.유동성장기차입금 | | 92.유동성장기차입금 | |
| 93.유동성장기차입금 | | 93.유동성장기차입금 | |
| 94.유동성장기차입금 | | 94.유동성장기차입금 | |
| 95.유동성장기차입금 | | 95.유동성장기차입금 | |
| 96.유동성장기차입금 | | 96.유동성장기차입금 | |
| 97.유동성장기차입금 | | 97.유동성장기차입금 | |
| 98.유동성장기차입금 | | 98.유동성장기차입금 | |
| 99.유동성장기차입금 | | 99.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0.유동성장기차입금 | | 100.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1.유동성장기차입금 | | 101.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2.유동성장기차입금 | | 102.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3.유동성장기차입금 | | 103.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4.유동성장기차입금 | | 104.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5.유동성장기차입금 | | 105.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6.유동성장기차입금 | | 106.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7.유동성장기차입금 | | 107.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8.유동성장기차입금 | | 108.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9.유동성장기차입금 | | 109.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0.유동성장기차입금 | | 110.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1.유동성장기차입금 | | 111.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2.유동성장기차입금 | | 112.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3.유동성장기차입금 | | 113.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4.유동성장기차입금 | | 114.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5.유동성장기차입금 | | 115.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6.유동성장기차입금 | | 116.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7.유동성장기차입금 | | 117.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8.유동성장기차입금 | | 118.유동성장기차입금 | |
| 119.유동성장기차입금 | | 119.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0.유동성장기차입금 | | 120.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1.유동성장기차입금 | | 121.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2.유동성장기차입금 | | 122.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3.유동성장기차입금 | | 123.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4.유동성장기차입금 | | 124.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5.유동성장기차입금 | | 125.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6.유동성장기차입금 | | 126.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7.유동성장기차입금 | | 127.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8.유동성장기차입금 | | 128.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9.유동성장기차입금 | | 129.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0.유동성장기차입금 | | 130.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1.유동성장기차입금 | | 131.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2.유동성장기차입금 | | 132.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3.유동성장기차입금 | | 133.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4.유동성장기차입금 | | 134.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5.유동성장기차입금 | | 135.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6.유동성장기차입금 | | 136.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7.유동성장기차입금 | | 137.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8.유동성장기차입금 | | 138.유동성장기차입금 | |
| 139.유동성장기차입금 | | 139.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0.유동성장기차입금 | | 140.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1.유동성장기차입금 | | 141.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2.유동성장기차입금 | | 142.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3.유동성장기차입금 | | 143.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4.유동성장기차입금 | | 144.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5.유동성장기차입금 | | 145.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6.유동성장기차입금 | | 146.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7.유동성장기차입금 | | 147.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8.유동성장기차입금 | | 148.유동성장기차입금 | |
| 149.유동성장기차입금 | | 149.유동성장기차입금 | |
| 150.유동성장기차입금 | | | |